

남원시, 5대 식품 집중 육성

향토·전통·지역전략식품·이너뷰티식품 등 전북도 생진원에 용역... 실행과제 도출 계획

남원시가 농촌융복합산업의 안착을 도모해 농가소득을 높이고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향토·전통식품과 지역전략식품, 이너뷰티식품 등 5대 분야 농식품산업을 집중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남원시는 20일 남원시청 회의실에서 농식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방향과 활로를 찾기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에 용

역을 의뢰해 남원시 실정에 맞는 새로운 비전과 실천 가능한 실행과제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김동규 남원시 부시장, 이형우 안전경제건설국장, 농업부서장 및 농식품분야 전문가, 지역농협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연구용역은 중앙정부의 농식품 방향과 지역특성을 고려해, 이너뷰티식품 연구개발 (R&D)지원강화, 농업과 기업의 연계강화, 중소식품기업 육성, 전통식품·전통주산업 육성, 지역전략식품·향토식품·기능성식품산업 육성 등 5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장한수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의 농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추진계획 설명과 일정보고에 이어 육성방안에 대한 참석자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남원시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관련 지원사업 확대 및 실행계획을 구체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농식품산업의 혁신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0년 공모사업 등에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남원시는 그동안 재단법인 국제한식문화재단과 함께 전통식품 창업육성사업으로 부각식품산업을 창업·재취업으로 연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남원시는 20일 남원시청 회의실에서 농식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방향과 활로를 찾기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남원시, 시원한 여름위해 녹색도시 조성

무궁화·나무수국 등 8종 3만5092주 심어 대기정화 도모

남원시가 시민들에게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녹색도시 그린경관 조성사업에 매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남원시는 올해 도심 곳곳에 교·관목 3만6000본과 다년생 초화류 20만본을 식재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무궁화, 나무수국, 산철쭉, 황매화, 이팝나무, 홍가시나무 등 8종 3만5092주를 시가지와 외곽지역에 식재해 대기정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우선 남원시는 올 상반기에 국악예술포럼, 덕과 무궁화 동산, 어현동 도시숲 조성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했으며, 특히, 어현동 대규모 도시숲인 오감만족 숲은 시내권과 가까워 시민들의 여가와산책 공간으로 인기가 높다.

또한 남원의 대표관광지로서 자리 잡은 테마파크~남원시립감동미술관~함파우~소리체험관 구간에는 수국·가우라·꽃무릇 테마꽃길을 조성해 시민과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으며, 남원의 관문인 북남원로에는 시목(市木)인 배롱나무가 여름철 볼거리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 도심을 가로 흐르는 요천과 옛 남원역 주변 향기원에는 연중 튜립, 페튜니아 등 계절별 초화류가 연중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다.

이밖에도 핑크플리, 갈매, 코스모스, 백일홍 등 다양한 경관을 연출해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신성마을에는 주차장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탐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요천 100리길에는 살구나무, 뽕나무 등 구간별 특색에 맞는 나무가 심어져 심정감을 달리는 자전거 동호인들이 즐겨 찾고 있다.

한편 남원시는 내년도 역점 사업으로 공공청사 수직정원 조성사업을 발굴해 앞이 아름답고 피복력이 좋은 상록 수종을 벽면에 녹화 시공해 그린청사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이정일 마을계획 추진단장은 인월면 마을계획단 사업의 중요한 의의를 밝혔으며, 그중 전국 최초로 지역 청소년 다섯명이 계획단에 참가해 어른 참가자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

인월면 마을계획추진단 주민총회

남원시는 20일 인월면사무소에서 인월면 마을계획추진단이 주최한 주민총회를 가졌다.

남원시가 말하는 '주민총회'는 일반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수립한 자치계획을 주민들과 함께 살펴보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실질적으로 주민 스스로가 마을 발전계획을 결정하도록 하는 회의이다.

인월면에서는 지난 3월 11일 인월면 마을계획단 발대식을 갖고 5월 7일까지 총 9회의 워크숍을 진행, 생활문화, 주민모임활성화, 환경, 아동청소년, 학생분과 등 5개 분과를 구성하고 각 분과 당 10여개의 마을발전 의제를 발굴해 왔다.

인월면 마을계획 추진단이 분과별로 제안한 의제는 마을에 필요한 사업, 개선사항, 발전방안 등을 담은 계획들이어서 총회 참여 주민들에게 호응이 높았다.

이정일 마을계획 추진단장은 인월면 마을계획단 사업의 중요한 의의를 밝혔으며, 그중 전국 최초로 지역 청소년 다섯명이 계획단에 참가해 어른 참가자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



순창군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 최근 프로바이오틱스 특성을 갖는 고초균 1종에 대해 국내 바이오 업체인 (주)SynBio와 1억원 규모의 전용실시권 계약을 체결했다.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 도약

진흥원, SynBio와 1억원 규모 전용실시권 계약

순창군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사장 황숙주, 이하 진흥원)이 최근 프로바이오틱스 특성을 갖는 고초균 1종에 대해 국내 바이오 업체인 (주)SynBio와 1억원 규모의 전용실시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판매한 고초균인 바실러스 아밀로리케 파시엔스 SRCM100731균주는 주로 전동장류발효식품으로부터 분리한 토착 발효미생물로서 식품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항균활성과 프로바이오틱스 특성을 갖는 유익균이다.

특히 콩 발효식품에 주로 사용되며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 연구를 통해 지난해 특허권을 획득한 미생물이다.

이번 계약 체결은 지난해 1억원 규모의 농업회사법인 릿츠팜과 맺은 균주 판매에 이어 두 번째 계약으로, 순창의 신성장 동력사업인 발효미생물 분야의 상업화로 탈바꿈을 기대하게 하는 대목이다.

현재 진흥원은 한국형 유용균주 산업화 기반 구축사업을 토대로 연구용 균주 4만주와 산업용 균주 3천주를 확보해 국내 토착발

효미생물의 산업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매진하고 있다. 이번 아니라 국내 미생물산업에 활용 가능한 균주 정보를 기업체에 제공해 국내 미생물 산업의 상용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특히,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SRCM100731균주는 한국형 유용균주 산업화 기반구축 및 한국형 글로벌 장 건강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확보한 균주로 기능성 효능 검증 및 특성규명을 통해 특허권을 확보하여 한국형 토착 발효미생물의 우수성을 입증한 바 있다.

이번 미생물 균주 판매 계약으로 (주)SynBio는 신규 프로바이오틱스 후보 소재 확보와 관련 기술력을 활용해 신바이오틱스 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등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순창의 미래 먹거리인 발효분야의 산업화가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향후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활용분야를 넓혀 나가 미생물 분야 선두주자로 우뚝 서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매아리

전주생명과학고 임실동문회 애향장학금 100만원 기탁

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애정이 고향 장학재단의 장학금 기부로 이어지고 있다.

전주생명과학고 임실군 동문모임인 '한세대(회장 이차섭)'는 20일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써달라며 (재)임실군 애향장학회(이사장 심민)에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한세대'는 전주생명과학고 임실군 동문 모임으로 71회 이상 동문이 주축이 되어 지난 2011년 모임 결성 이래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로 3년째 장학금을 기탁해 후배사랑을 품소 실천하고 있다.

이차섭 회장은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회원들의 뜻을 모아 올해도 장학금을 기부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보람차다"며, "후학 양성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민 이사장은 "고향을 사랑하고 후배들을 아끼는 한결같은 마음과 관심에 감사 드린다"며, "기부해 주신 장학금은 지역의 인재들이 큰 일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장학사업에 유용하게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추 바이러스 진단키트 2분 안에 판독 순창군 농기센터, 농가지도 신속해져

순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승)가 고추 바이러스·병을 현장에서 진단할 수 있는 현장키트를 사용하면서, 농가 대응지도가 신속해져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고추장의 고장인 순창군은 253ha의 면적에 고추를 재배하고 있지만 매년 고추 바이러스나 칼라병 발생으로 품질과 생산량이 떨어져 농가 소득이 감소되고 있다.

이에 순창군은 고추 등에 많이 발생하는 바이러스·병 현장진단키트 16종(바이러스 12종, 병 4종)을 지난 4월부터 구입해 농가에서 진단의뢰가 있을 때 재배현장에 방문해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진단키트 사용으로 2분 안에 바이러스 감염여부 진단이 가능해져 신속한 대응으로 군 측이나 농가 모두 만족하고 있다.

현재까지 현장진단키트 40건을 사용해 고춧잎에서 2건 양성, 나머지 38건은 음성반응이 나왔다.

양성반응이 나온 고춧잎에 대해서는 생리장해로 Ca 등 엽면시비 처방, 육묘상 운송도 관리, 진딧물과 총채벌레 방제 등을 현장에서 지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 www.jjmaeil.com